

# 세계화 전략과 한국 경제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위하여-

김중용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원장(經博)

## 머리말 - 우리나라의 현실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1995년부터 국정 지표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화 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1994년에 언급되었던 국제화와 개방화, 선진화, 자유화라는 유사 동의어들과 세계화와의 차이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세계화 추진의 '주체'와 '이념'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역사적 의의와 세계화 추진이 국가 경쟁력의 세고를 의미한다면, 국가 경쟁력을 경제적 의미의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으로 나누고, 세계화 경제 정책의 배경이 되는 이념(철학)을 한번 생각해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 1995년 초에 예상한 9~10%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 목표는 1995년에 그대로 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가도 5% 미만인 4.7% 정도일 것이고, 수출도 금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제적 거시 지표 상으로 볼 때, 1,000억 달러의 수출 목표 달성과 1인당 국

민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선 1995년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64년에 부족한 자원이 없고, 시장이 협소한 애로점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대외 지향적 경제 전략을 취한 이후, 당해년도에 1억 달러, 1974년에 10억 달러, 1977년에 100억 달러, 1995년에 1,0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물량적인 의미 이외에 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1인당 국민 소득도 마찬가지로, 보통 경제 발전 단계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을 500~1,000 달러, 3,000~5,000 달러, 5,000 달러 이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500~1,000 달러는 최극빈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인구는 크게 늘어나고, 저축이 안 되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를 못하니 까 성장이 안되는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 수립되어 고비를 넘기고 나면, 경제 정책 목표나 국민의 소원은 부족한 것의 충족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3,000~5,000 달러가 되면 소위 '소득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여 남과 비교해 부족한 것에 대한 불평이 커지고, 또 경제적인 자유

스러움과 풍족함은 얻었지만 민주적인 자유화와 평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노사 분쟁도 많아지게 되는데, 외국의 경우 50년대 말에 서독에서 노사 분쟁이 커졌었고, 60년대 초에 일본도 노사 분쟁을 비롯해 소득 혁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東京大에 가보면 총장실이 어딘지 모르는 미로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적군파나 학생 시위대들이 학교를 점령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던 이후부터 총장실의 위치를 모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 3C라는 것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Car), 에어컨(Cooler), 컬러 TV(Color Television)인데, 이 3C의 수요가 국민 소득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에도 가전 제품이 싸기 때문에 모두 냉장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냉장고의 내용물은 선진국처럼 다양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자기 소득에 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을 '소득 혁명'이라 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도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994년, 1995년의 노사 분규는 잘 넘겼습니다만, 과거에 노사 분규가 컸던 이유를 이런 경제 발전 단계와 국민 소득과의 관계로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 지표 상으로 1995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 서고, 수출도 1,000억 달러를 넘고, 물가도 안정되어 좋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당장의 큰 문제는 국제 수지입니다. 1995년의 80

억 달러 정도의 국제 수지 적자로 우리나라의 전체 채무액이 700억 달러 이상일 것입니다. 보통 외채 비율이 30% 미만일 때는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9.5% 정도로 10% 미만이니 아직 외채 상황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계 무역 환경이나 해외 금융 시장이 좋을 경우이고, 이런 환경이 나쁠 때는 믿을 만한 지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큰 문제는 1,000억 달러의 수출 달성에도 불구하고 對日 무역 적자가 141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산업 구조가 많은 자본재와 원자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구조때문이지만, 어쨌든 수출이 늘면 늘수록 수입도 늘고 적자 규모가 커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상의 문제로는 무역 수지가 실재는 적자인데, 외환 및 자본 자유화로 인한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종합 무역 수지가 흑자라는 것입니다. 그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절상되어 수출이 어려워졌고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무역 수지의 흑자 기초가 정착되었을 때 외환 및 자본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개방화 문제는 개방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선택 문제라기 보다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우리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부실 공사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만, 부실 공사로 인한 참사가 반드시 거기에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치계에 일어나면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같은 정치 소용돌이요, 학교에 일어나면 입시 부정 사건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에서 대구의 가스 폭발 사건과 성수대교 사건, 가정에서는 존속 살인과 방화 사건, 그리고 대학에서는 입시 부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본질은 같으나 유형이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요인으로 정치우월주의, 행정편의주의, 성장위주 정책, 결과 중시 정책 등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당의성과 정당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자원이 부족하고 선택의 폭이 좁았을 때 불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 수단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성장 위주, 결과 위주를 중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제 구조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는 결과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치우월주의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산업화하는 데 100년 내지 200년이 걸린 것을 30년만에 이루었습니다. 그 뜻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경제적 문제가 우리나라는 30년에 모두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수대교의 경우, 처음에 18톤의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80톤 이상의 차량

이 지날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소위 정신 구조의 이중성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쪽으로는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이 발전되어 합리주의를 요구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지역 감정이라든가 국민 정서, 의리, 신의 등 농업 사회적인 성격같은 정신 구조의 이중성이 합리적 행동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또 賤民자본주의의 확산과 X세대의 출현이 있습니다. X세대는 신세대라는 의미에서 좋은 것이지만, 舊세대와 신세대간의 가치 체계가 조화되지 못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 문화는 예전에는 '이리 오너라' 하고 여유를 가진 '양반 문화'였으나 근대에 들어서는 소위 '브리핑 문화', '빨리빨리 문화', '대충 문화', '서두르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풍지 문화'라는 대충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셈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명확히 떨어지는 것이 없고, '한 두 개, 두 서 개, 몇 개'입니다. 또 음식점에 가보면 불고기 1인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1인분이 2인분 양이 되는가 하면 어떤 곳은 그 반도 안되는 등 수치의 애매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지저고리를 보면, 이 어령氏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26인치 허리나 33인치 허리나 똑같이 맞습니다. 대충적입니다. 또 신발의 경우도 좌우 구별이 없어 왼쪽 신었다 오른쪽 신었다 합니다. 신

테렐라 이야기에서 벗겨진 한쪽 신발은 한 사람에게만 맞지만, 우리나라의 짚신이라면 다 맞을 것입니다. '문풍지 문화'라는 것도 처음부터 문의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겨움에 이 문을 통해 찬 바람이 들어오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문 창호지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 역시 대중적인 문화입니다.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질서와 환경에 맞는 新가치관 확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 세계화의 개념

1995년에 김대통령이 국정 지표로서 세계화를 부르짖었습니다. 1995년 초에 AT&T社를 방문했을 때, 미래의 세계를 보여주는 방에서 3者が 화상으로 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권 시장에서 증권을 다루는 사람, 몽블랑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 그리고 에스키모 사람 셋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몽블랑 샴они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와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이 뉴욕 증권 시장의 주가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뉴욕 증권 시장에 있는 사람은 스파게티를 먹고 있었는데, 화면에 "Hi, John. It smells good."이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냄새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화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으며, 이처럼 세계는 정보화 사회가 되고 있고 패러다

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80년대 패러다임의 키 워드는 코스트 절감(cost down), 대량 생산(mass production), 능률(eficiency)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는 양(quantity)이 질(quality)로, 시간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조업의 굴뚝이 많이 서면 기업이 성장하는 줄 알지만, 눈깜짝할 1, 2 초 사이의 정보 취득 여부가 수십 개의 굴뚝을 세웠다 없었다 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최근에는 키 워드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80년대는 코스트, 양(quantity), 그리고 능률(eficiency), 90년대는 질(quality)과 유연성(flexibility)이었는데, 지금은 가치(value)입니다. 고품질의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늘 경쟁력 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가치있는 물건의 공급 여부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과 '소비자 시장(buyer's market)'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고객이 생산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해주겠습니까(What can you do for us)?"라고 묻습니다. 전에는 "품질 좋은 제품을 싸게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가치를 드리겠습니까(We can give you some value)"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기업인도 질을 넘어서 스피드를 가지고 가치를 어떻게 창조해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뀜으로 해서 과거의 가

치관과 경제 정책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계화 전략을 주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계화라는 말이 국제화, 자유화, 개방화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또 세계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것을 다 버리는 것이냐, 우리 문화는 어디로 가느냐, 19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는데 민주적 풀뿌리라고 하는 지방화와 세계화는 상충관계냐 보완 관계냐” 등의 의문으로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 세계화는 경영학적 개념입니다. 영어로 ‘transnational corporation’, ‘multinational corporation’으로서 생산 체제가 다국적·초국가적이고, 직접 투자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져서 하나로 시스템화·통일화되는 것입니다.

개방화는 문호를 열어 생산 요소인 자본, 노동, 또는 문화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유화는 규제를 풀고 자율적인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내적 자유화가 규제 완화이고, 대외적 자유화가 국제화입니다. 그런데 국제화가 되면 국가의 내부적 고착성을 뛰어넘어서 국가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정부의 주권이 어느 정도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되면 ‘국경없는 시장(borderless market)’에서 소위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세계의 공존 공영을 도모하고, 경쟁 또는 협력을 통하여 자기 나라의 번영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세계화 시대가 되면 그 나라 행정 통할권이 굉장히 약화되며 특히, 넓은 의미의

세계화는 개방화, 자유화, 국제화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고, 경제적 측면 특히, 정보 측면에서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대 국가화(megastate)’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대 국가화 된다고 우리나라가 아주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세계화의 역사적·시대적 의미

세계화는 어떤 역사적·시대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생존 전략으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脫이념적이 되면서 세계는 단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통합되어갑니다. 소위 부한 경쟁이 시작되는데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의 생존 경쟁입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앞에서 표면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지식적으로 안정 기초가 구조적으로 정착되지 않아서 즉, 인플레이 체제가 기 때문에 시장 가격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미시적으로 기술 개발이나 경영 합리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산성이 낮고 국제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정신적인 면에서 자본주의의 정신인 성실, 근면 그리고 정의가 실종되면서 물질만능주의로 빠지는 천민자본주의의 확산입니다. 그 중에 국가(국제) 경쟁력이 약해지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유로운 경쟁이 억제되거나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의 추구는 단순한 개방과 국가간의 교류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무한 경쟁)을 허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써 전략적 의의를 갖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경쟁을 하도록 분호만 열어 놓는다고 저절로 국가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화를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나 보호 장치로써 경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개혁의 정방향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서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과거 정부와의 연계성을 단절하고 새로운 한국을 창조하고자 하여 국민의 호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처음부터 비전과 철학이 불분명하여 국민의 환호를 받으면서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혁의 방향은 부한 경쟁의 새로운 21세기에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는 능력(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민 정부가 들어서서 행한 첫번째 개혁은 사정적인 개혁 즉, 과거를 들추는 개혁이었고, 두번째 개혁이 소위 세계화라는 슬로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21세기에서 살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생존 능력 또는 적응 능력을 기르는 것이 세계화이고 이것이 개혁의 정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에게 개혁

하려는 방향과 철학(direction & vision)을 분명히 하고, 사고·행동 방식(style)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내용(substance)을 제시해야 하며, 국민의 지지(support)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철학이 부족했고, 실체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있었다면 금융실명제입니다. 역대 정권이 시도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함으로써, 부정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정경 유착을 근절하며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는 신정부가 주창한 신한국 창조의 실제적 제도 개혁의 하나라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현재 99%의 금융 실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금융실명제를 도입기, 착근기, 활착기로 구분해보면 우리의 경우 도입기에 불과합니다. 1996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과 실시된 후를 비교했을 때, 금융 기관의 예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도리어 늘었다면 금융실명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국가 발전 방향과 목표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현대 국가의 정책 목표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복지 국가는 물질적 복지뿐만 아니라 정신적 평화와 위안까지 포함하는 정신적 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은 세계화 수준의 복지, 세계화 수준의 물질과 정신적인 풍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계화와 국가 경쟁력

세계화는 경제적 의미로 집약해보자면 결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국가 경쟁력을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가격, 품질, 디자인, 서비스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나누면 가격 요소와 비가격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은 거시적으로 생산의 3대 요소인 자본, 노동, 토지의 요소 가격인 금리, 임금,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가격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한편, 미시적으로는 기술 개발이나 유통 개선에 의하여 제품의 원가를 낮추어 생산성을 높일 때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소득 계층이나 고객 수준에 따라서는 가격에 관계없이 제품의 질이나 가치에 의하여 경쟁력이 좌우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소위 비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세계화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제적 의미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일차 목표가 됩니다.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 발전 단계에 비추어볼 때 일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는 비가격 경쟁력이 더 중요함을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값싼 노동력과 값싼 자본에 중간 정도의 기술을 결합하여 대량 생산 방식으로 표준

화된 제품(standardized products)을 생산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선진화될수록 임금 수준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경제 성장으로 투자 자금을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구조 하에서는, 금리 수준도 쉽게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 등 후발 개도국들이 싼 가격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상품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의 재고 노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소득이 높아지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취미와 욕구는 다양해지고, 이를 만족시키는 요인이 반드시 고품질의 상품을 저가로 취득할 때 충족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대와 같이 물질 문명이 지극히 발달한 시대에는 정신적으로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더 큰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국가 경쟁력은 새로운 가치 창조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세계화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제품(better than the best)이 아니면 제품의 생명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 전략의 핵심은 바로 창조적 차별화(creative differentiation)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경쟁 우위를 점해온 표준화된 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고도 기술 내시 두뇌 집약적인 자동화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창조적 차별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화 ‘서편제’가 외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우리 고유의 동양적인 영상과 함께 민중의 소리고, 외침이고, 恨인 때을 소재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붓 이머지가 일부러 밭의 늪을 벌게 한 후, 밭에게 “나는 내가 나를 늪벌게 한 것을 아느냐?”, “아니다”, “그러면 이제서 네 소리에겐 恨이 실리지 않았느냐?”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네 소리에 가슴을 갈로 지비는 恨이 있어야 한다. 한에 파묻히지 말고 恨을 넘어서야 늪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꾼의 철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계화도 恨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의 전통과 역사와 예술이 종합 표현된 문화적 요소를 이용할 때, 창조적 차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세계화와 新인본주의 경제 정책

세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경제 주체가 세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계화의 지해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해 요인을 극복할 적절

한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우리의 경쟁력을 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력 세고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가치관의 새로운 정립과 세계화 추진 전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우리가 세계화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세계를 생활 무대로 삼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보람의 만끽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기쁨과 행복 즉,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위안감을 주는 복지 국가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계화는 인류의 공존 공영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모든 국가가 한 지구촌의 일원이므로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경우, 세계의 공동 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또한 인류의 공존 공영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신진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조, 평화, 풍요, 조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자본주의 정신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확립해야 무한 경쟁 속에 국가, 민족간의 협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新인본주의를 세계적 공동 가치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신인본주의 경제 정책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최대로 존중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중시하는 정책이므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경제 정책의 초점이 주어져야 합니다. 신인본주의를 새로운 한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이념이라고 할 때 그 경제 정책은 富民, 安民, 和民, 文民의 4民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富民 정책은 경제 정책의 목표가 국가나 기업보다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 발전이나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이 아닌 보통 사람들에게 많이 돌아가게 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과거 경제 개발 시대와 권위주의 시대에는 부민보다 부국 정책에 비중을 두었으나, 지금의 우리 경제 발전과 문화 수준에서 볼 때 국가 위주의 정책이 아닌 국민 중심의 부민 정책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부국 정책에서는 정책의 목표와 결과가 중요시되었으나 부민 정책은 정당한 수단과 적법 절차가 더욱 강조됩니다. 경제 성장도 국민의 거시적 평균 개념보다는 대다수 보통 국민의 미시적 형평 및 복지 개념이 정책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 문제가 중요하나 동시에 책임과 고통의 분담도 공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安民 정책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 생활의 안정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확보되어야 하며, 그 핵심 내용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다운 생활의 범위는 정신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포함합니다. 안민 정책의 정치적·사회적 의미는 主權 在民의 정치적 자유권과 생활의 불안과 사회적 범죄로부터의 해방을 뜻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의미의 안민 정책으로서 衣食住 생활의 안정입니다.

셋째, 和民 정책은 국민의 화합으로 국력을

통합하여 국가 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꿈이나 이상과 같은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고 바라는 정신적 목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기존의 가치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국민적 指向 價値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목표는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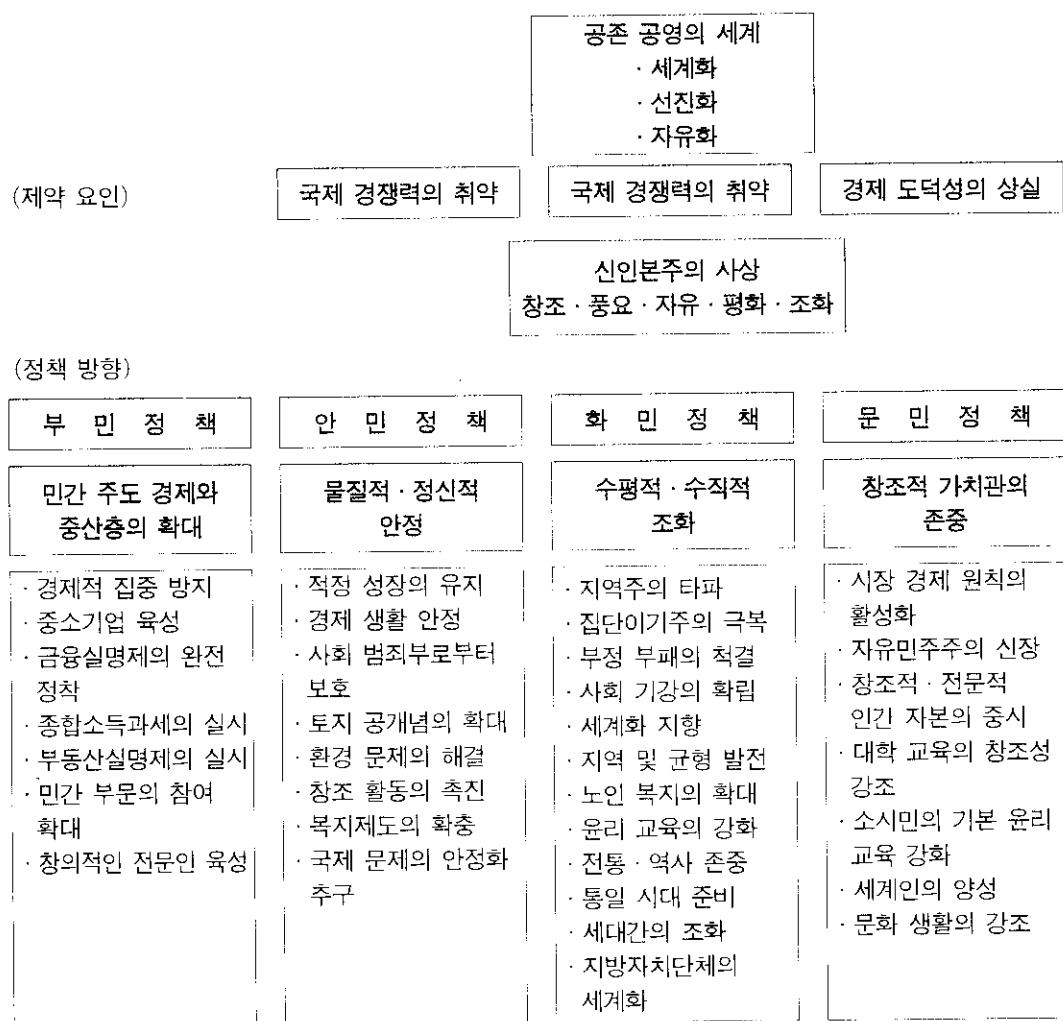
넷째, 文民 정책은 인간의 창조적 가치관을 존중하므로 인간 본질의 자유와 창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존중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창조하는 힘을 부여받은 개성있는 인간을 진재로 할 때, 자율성, 창조성, 다양성을 강조하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인간의 이러한 특성은 교육을 통해 부단히 연구하고 개발할 때, 그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문민 정책에서는 교육, 훈련 그리고 질서가 중시되어야 하고, 반대 개념인 타율성, 단순성, 획일성, 통제성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문민 정책의 경제적 의미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 경제제도를 진재로 하며, 이 제도야말로 자율성과 다양성과 창조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집단의 의사 결정은 상제적인 명령 통제가 아닌 자율적 민주 방법에 의한 다수의 의견 수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생산의 주요소가 자본, 토지, 노동, 기술보다는 정보가 중요시되는 知價 사회, 정보화 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한 상

조직 전문 인력이 국가 발전과 국가 경쟁력  
우위 선점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구나 선진국이라는 것이 단순히 거시적 경제  
물량의 확대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운영이라든가 질서 조화와 같은 미시적  
인 微調整의 개념이라면, 선진국이 되는 이론

이 바로 문화 이론이고 문명 이론입니다. 그  
러한 의미에서 문화의 발전없는 경제나 정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높  
은 경제나 정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  
화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림〉 신인본주의 경제 정책




## 맺음말

21세기의 문턱에서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는 금세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로 우리를 휘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변화의 중심어가 '근대화'였다면 금세기와 21세기를 가르는 환경 변화의 핵심어는 '세계화'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도전과 응전이 새로운 세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념적 대립의 냉전 시대인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세계는 군사 패권주의 중심에서 경제력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경제력의 의미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무국경의 무한 경쟁을 하면서 단일 세계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체제로 통합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별 국가의 문제가 지구촌의 공통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자원, 핵, 마약, 범죄 등의 문제도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하나의 공동 경제 단위로 통합되어가면서도 아직은 인종, 종교, 남북 문제로 인해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혼란과 갈등을 넘어 인간의 창의성과 지식이 가장 가치있는 생산 요소로서, 인류 삶의 질을 높이는 고도 과학 사회인 정보화 知價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시대를 규율하는 새로운 가치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

개념의 축소를 가져왔고 그로 인한 각국의 문화 가치관의 차이에 의한 이질 요소는 희석되면서 세계인은 인류 공영, 지구촌 공통의 이해 관계와 가치 체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계화가 지향하는 새로운 세기의 질서를 규율하는 가치관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본주의 사상이 그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는 정보와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이들의 풍요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가능케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인본주의 사상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르네상스시대의 인본주의가 절대 존재인 신을 전제로 하는 자유 평등 사상과 인간 가치의 재발견, 자연으로의 회귀라 한다면, 오늘날의 신인본주의는 과학의 발달과 그로 인한 인간의 오만이 인간의 자체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고 사랑과 화해로서 끊임없이 순화하려는 인간 노력에 대한 외경, 또 숲인류가 지구촌의 한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인간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러한 신인본주의는 세계관적 차원에서 평화·평등·조화·창조·풍요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추구하는 인본주의의 내용과 수준은 바로 세계적 수준이어야 하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곧 세계화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인본주의의 가치관을 세계화의 이념으로 추구할 때, 인간의 자유와 창의는 최대로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전명화의 감상**

**• 이영재 / 미술평론가**



아프로디테. 기원전 300년전의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을 본 뜬 로마의 복제품, 대리석, 높이 2m. 로마 바티칸 미술관 소장

고대 그리스시대의 조각가를 꼽으라면 우리는 단연 프락시텔레스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프락시텔레스는 그리스 조각의 고전기에 활약했던 조각가로서 그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많은 조각들은 헬레니즘시대나 로마시대에 와서 다시 복제된 작품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프락시텔레스가 살던 시기의 그리스 조각은 과거 이집트나 소아시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소위 '콘트라포스트'라는 그리스 독자적 양식을 확립하였다. 이와 같은 그리스 고전기의 양식이었던 콘트라포스트는 프락시텔레스에 의해 보다 확고히 구축되게 된다.

잘 알려지 있듯 바와 같이 프락시텔레스는 여성적인 우아함과 육체의 관능미를 표현하는 데 뛰어났다. 프락시텔레스의 대표작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니뭐니 해도 '아프로디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프락시텔레스의 이 작품은 '에게 거대한 명성을 안겨다 준 작품이기도 한데, 그러한 이유로 아프로디테는 서양의 고전문학에서 종종 전대미의 동의어로서 간주되어져왔다. 어떤 의미에서 아프로디테의 명성은 그녀의 아름다움에서 비롯되는지도 모르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는 이 작품이 최초의 여신을 찬양하는 완전한 누드 작품이라는 데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작품이 아프로디테의 오리지널 작품과 동일한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조각 작품은 소멸되었고 오직 로마 시대에 와서 다시 복제된 작품만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현재 로마의 바티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정교한 머리선의 표현과 이상적인 몸의 비례 그리고 S자형의 몸의 변화, 그에 의해 형성되는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느낌 등이 정확한 묘사력에 의해 정교하게 표현된 데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조각이야말로 전 형적인 고대 그리스의 고전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식은 두고두고 서양미술에서 규범이 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후 유럽의 르네상스와 신고전주의 미술의 추종자들은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였는데 그들이 말하는 고대 그리스로의 회귀는 다음이 아닐 이와 같은 고전기 조각 작품의 이상을 다시 구현하는 것이었다.

프락시텔레스의 또다른 유명한 작품으로서서는 현재 올림피아의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헤르메스 상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매우 정교한 상태로 오늘날까지 보존되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작품이야말로 프락시텔레스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믿어왔었다. 하지만 오늘날 몇몇 미술사자들은 이 작품 역시 프락시텔레스가 죽은 지 약 3세기 이후의 훌륭한 그리스 복제품들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무튼 프락시텔레스는 이처럼 훌륭한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불행히도 오늘날 아무런 의의없이 그의 작품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듯 프락시텔레스의 헤르메스상 작품도 아프로디테와 마찬가지로 프락시텔레스의 비범한 재능이 깃들여 있는 작품임은 틀림이 없다. **HRI**